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옴

(목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2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경: 계 2:1-7

- I. 일곱 등잔대로 상징되는 일곱 교회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 A. 이 일곱 교회는 그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교회들이었다.
 - B. 이 일곱 교회는 교회의 칠중(七重) 역사(歷史)를 상징한다.
 - C. 교회들의 여러 상태는 교회의 칠중 역사 중에 동시에 존재한다.
- II.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곧 실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유죄 판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위한 주님의 실지적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 A.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 보아야 한다. 오늘날 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 준다. 여러분이 이 두 장에서 그 길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
 - B. 일곱 교회에 보낸 일곱 서신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이기는 이들에 대한 부름으로 끝난다. 이기는 이들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이들이다. 비정상적인 시기 동안에는 비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기는 이들이다.
 - C. 오늘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실패하며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고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온다.
- III. 주님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는 네 가지 주된 요점이 있는데, 바로 사랑과 생명과 빛과 등잔대이다 — 계 2:1-7.
- A. 우리는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며, 반드시 첫째가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 계 2:4-5.
 - 1. 첫째가는 사랑을 떠나는 것이 역대로 교회가 실패했던 근본 원인과 주된 이유이다.
 - 2. 골로새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서 반드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으뜸의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 골 1:18하.
 - 3.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주 예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이 되시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겼음을 의미한다 — 비교 시 73:25.
 - 4.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강권되어, 다만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 고후 5:9, 14-15.
 - a.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분의 통제와 지시와 다스림 아래 있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존귀함을 얻기로 결심하고, 오

- 직 그분의 목표와 목적만을 관심하는 것을 의미한다.
- b.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지시와 통제 아래 있다는 것과, 우리가 그분의 요구를 이루고 그분의 갈망을 만족시키며 그분의 의도를 완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이스라엘의 실패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렘 2:13), 교회의 하락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사실상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버리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으뜸으로 취하지 않는 것이다.
 6. 첫째가는 사랑은 틀림없이 모든 것에서, 즉 큰일에서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 우리의 주인을 첫째가는 분으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지 않은 모든 일에 대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7. ‘첫째가는 행위’는 ‘첫째가는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이다 — 계 2:4-5.
 - a.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고후 5:10), 분명히 우리의 일이 위대하기 때문에 혹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닐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한 일 중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보실 것이다.
 - b. 오직 사랑에 의해 유발된 이러한 일들만이 금과 은과 보석이다(고전 3:12).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하는 그들의 사랑에서 기원한 것이고, ‘사랑의 수고’(살전 1:3)일 것이다.
 - c.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전혀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다 — 말 3:14.
 8. 주님께서 교회의 등잔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가 그 이후로 더 이상 외적인 활동이나 움직임을 전혀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a.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떠나고 또한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방의 터 위에 서 있지만 금등잔대로 예표되는 삼일 하나님의 실재와 증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
 - b. 등잔대를 옮기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교회의 증거, 곧 예수님의 증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회가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고, 더 이상 주님의 증거인 교회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B.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가진다면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할 것인데, 주님 또한 이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 — 계 2:4, 6.
 1. ‘니콜라당’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정복하다’ 혹은 ‘보다 우월하다’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혹은 ‘평신도’를 의미한다.
 2. 따라서 ‘니콜라당’은 일반적인 믿는 이들보다 자신들이 더 높다고 여기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채택하여 세운 성직자 계급 제도였다. 주님은 이 니콜라당의 일과 행위를 미워하시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한다.
 3. 합당한 교회생활 안에는 성직자도 평신도도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믿는 이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계 1:6, 5:10, 벧전 2:5, 9). 중간 계급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
 - C.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같이 훌륭한 교회를 지니고 정연하고 형식을 잘 갖춘 교회생활 가운데서 우

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꾸준히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 — 계 2:7.

1.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고 매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며, 교회생활은 우리에게 낙원이 될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었다(창 2:9, 16). 그러나 사람의 타락 때문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사람에게 막혔다(3:22-24).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사람이 생명나무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으며(히 10:19-20), 이 생명나무는 바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
 3. 그러나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가 지식과 함께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서 빗나가게 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신을 보상으로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그들이 종교와 그 지식을 떠나 그분 자신을 누리는 일로 돌아서도록 하는 격려제이다.
 4. 주님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회복하신다. 주님께서 이기는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온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교회의 타락 때문에, 주님은 이기는 이들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대신하게 하셨다.
 5. 생명나무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 a.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그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 b. 우리가 주님을 향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다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상실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등잔대가 우리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 c. 이 세 가지, 즉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누리는 것과 주님의 증거가 되는 것은 함께한다.
- D. 사랑은 생명과 관계있고, 생명은 빛과 관계있다. 사랑과 생명과 빛은 일종의 삼일성(三一性)이다.
1.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으뜸이 되시게 한다면,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가질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랑을 갖는다면 생명을 갖고, 또한 주님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가질 때, 이 생명은 우리에게 빛이 된다 — 요 1:4, 빌 2:15-16.
 2. 등잔대인 교회의 빛은 교회 시대의 어두운 밤에 개인주의적으로 비추지 않고, 반대로 단체적으로 비춘다 — 비교 계 2:5하.
- E.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과 생명과 빛으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방에서 등잔대의 빛남인 예수님의 증거를 지킬 것이다 — 비교 계 12:17하.
- F. 우리는 알파벳 ‘엘(L)’로 시작되는 이 네 단어, 곧 ‘사랑(Love)’, ‘생명(Life)’, ‘빛(Light)’, ‘등잔대(Lampstand)’를 기억해야 한다.
1. 우리는 반드시 모든 면과 모든 일에서 주 예수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러서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2. 이럴 때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릴 것이며, 이 생명은 그 즉시 생명의 빛이 된다 — 요 8:12.

3.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단체적으로 등잔대로서 빛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등잔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로부터, 단체적으로는 교회로부터 옮겨질 것이다.
4.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가질 것이고, 생명이신 그분을 누릴 것이며, 빛이신 그분을 비추어 낼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인 빛나는 등잔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 시대뿐 아니라 더욱더 오는 시대에서 우리의 보상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우리의 보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종교를 이기라고 명하시며, 이 일곱 서신에서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다른 문제들도 이기라고 명하신다. 우리가 이기라고 명령받는 첫 번째 것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과 놓치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이다(계 2:4-5상). 천주교의 많은 이들이 절대적으로 천주교회를 위하지만, 그들은 주님이나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기를...”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에 “교황이 말하기를...” 혹은 “교회가 말하기를...”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천주교회를 의미한다. 이것이 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이세벨이 그녀 자신을 여신언자라고 부르며 그분의 노예들을 가르쳐 미혹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이다(20절). 이것은 로마 천주교가 하나님을 위해 말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권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가장하고 있는 자칭 여신언자라는 것을 가리킨다. 충성스러운 천주교인들은 오직 교황이 말하는 것, 곧 교회가 말하는 것만을 주의한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에는 주의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드릴 어떤 사랑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그의 음성 곧 그의 말을 듣기 원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의 음성 곧 그의 말을 듣기 원하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천주교인들은 주님에 대하여 이와 같다. 그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나, 그들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애정이나 사랑하는 성분이 없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개신교 안에 있는 가라지들의 경우도 이와 같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의 성분이 없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간증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67년 전인 1925년에 주님을 영접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난 후에도 나는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아주 친밀하시다는 것과 내가 그분께 아주 가깝다는 것을 느낀다. 나는 어떠한 종교도 관심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사랑스러운 한 분, 곧 이 살아 계신 한 분을 좋아한다. 그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나는 늘 기쁘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인다면 더욱 좋다. 우리는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 얼마나 친밀하고 달콤하며, 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말인가!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주님은 사랑이 깊으실 뿐만 아니라 매우 다정하시다. 그분은 애정이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시고 구속하신 백성인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다’. 만일 당신이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즉시로 당신은 그분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매우 자주 나는 어떤 일들을 하지 않는데, 이는 그것들이 옳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린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없는 것은 단지 그분을 사랑해서이다.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길 필요가 있다. 에베소 교회는 좋은 교회였다. 그 교회는

질서 정연하고 형식을 잘 갖춘 교회였다(계 2:2-3). 틀림없이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좋아할 것이지만, 그러한 질서 정연한 교회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4절). ‘첫째가는’에 해당하는 헬리어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제일 좋은’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하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은 그분을 위한 가장 좋은 사랑이어야 한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제일 좋은’이라는 말은 ‘첫째가는’이라는 말이다.

이제 나는 첫째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첫째가는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가장 좋은 사랑인 첫째가는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인 그 사랑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본다(요일 4:8, 16). 온 우주 안에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그러나 남편들이 자신 안에서 그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랑이신 유일한 한 인격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제일 좋으실 뿐 아니라 첫째가는 분이시다.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처음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성경을 여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시작이시다. 하나님은 처음이시다.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첫째 지위를 가지셔야 함을 말한다. 그분은 으뜸이 되셔야 한다(골 1:18하). 그리스도께서 첫째이셔야 한다.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주 예수님을 모든 일에 있어서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시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겼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신가? 우리가 이겨야 할 첫 번째 항목은, 으뜸이시며 제일 좋은 분이시며 참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으며, 교회의 하락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실제로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곧 그분을 모든 것 가운데서 첫째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큰일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으뜸이 되셔야 한다. 형제들은 넥타이를 살 때 그리스도께 첫째 지위를 드려야 한다. 만일 내가 매우 세속적인 모양의 넥타이를 맨다면, 나는 나의 사역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나의 양심을 위해서도 나는 어떤 모양의 넥타이는 댈 수 없다. 자매들은 머리를 꾸미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첫째 지위를 드려야 한다. 만일 자매들이 머리를 꾸미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를 드린다면, 이것은 그들이 그분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세속적인 머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매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첫째가는 사랑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옷을 입는 방식에서나 머리를 꾸미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를 드려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일에 있어서 으뜸의 지위를 드릴 때, 이것이 첫째가는 사랑의 상실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첫째가는 사랑이 우리가 구원받을 당시 그리스도인의 생활 초기에 가졌던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을 때 비록 나는 주님께 매우 감사하였지만, 지금과 같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다. 육십칠 년 전에 나는 구원받고 주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내가 지금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첫째가는 사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주님과 우리의 주인이신 분을 모든 일에서 으뜸이 되시게 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때때로 나는 옷을 입고 있을 때에 주님께 “주님, 당신은 이 와이셔츠를 좋아하십니까? 당신은 이 신발을 좋아하십니까?”라고 말씀드린다. 그러한 대화는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과 매우 친밀한 대화이다.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큰일에서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역시 그분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는 것

이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우리가 주 예수님을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한 정도로까지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 가지 ‘주의(主義)’ 안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어떤 종교 안에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교(敎)’도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이 속해 있는 종교는 미워해야 한다. 주님께서 이러한 ‘주의(主義)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들을 미워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한다(비교 계 2:6).

주님은 추수 때까지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첫 번째 일은 천사들을 보내어 가라지들을 단으로 묶어 불 못으로 던지는 것이다. 왕국의 아들들인 밀은 왕국을 구성하는 반면에,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들은 왕국의 외형, 곧 오늘날의 기독교계를 형성해 왔다. 주님은 이러한 외형을 미워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야 한다.

우리는 또한 어떤 종류의 넥타이를 매는 데 있어서나 머리를 꾸미는 방식에 있어서, 또한 모든 작은 일들에 있어서 이겨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를 드려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느낌도 달라질 것이다. 온종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 모든 것이 유쾌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불쾌할 것이다. 은혜이신 주님을 누리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해당된다(엡 6:24).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겨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기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이 여러 시대를 통하여 교회의 실패의 근원과 주된 원인이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지속함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러한 훌륭하고 질서 정연하고 형식을 잘 갖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먼저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길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두 번째 것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지속하는 것이다. 에베소에 보내는 서신에서 주님은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계 2:7)라고 말씀하신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길 것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지속할 것을 명하셨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며 매일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누린다면, 우리는 놀라운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을 소유할 것이다.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에덴동산에서 처음 나타난다. 그 에덴동산은 당시에 하나님의 낙원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낙원은 교회생활이다.

나는 1932년부터 시작하여 육십여 년 동안 교회생활 안에 있었으므로 교회생활에 대한 많은 체험이 있다. 만일 당신이 한 달 동안 주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지 않거나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교회생활은 당신에게 즐겁지 못한 곳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당신은 이와 같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당신 속 깊은 곳에서는 교회생활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때에 교회는 당신에게 더 이상 낙원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첫째가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곧 주님을 누리는 것을 지속한다면, 즉시로 교회생활은 당신에게 낙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태도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며 온종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즉시로 교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교회는 우리에게 낙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이다.

물론, 요한계시록 2장 7절의 하나님의 낙원은 실제로 천년왕국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누린다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의 하나님의 낙원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생명나무, 곧 그리스도 자신을 먹는 것을 상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공급을 계속 누릴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천년왕국 안에서의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낙원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낙원인 새 예루살렘 안에서 아주 신전하게 우리는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 공급의 누림에 완전히 참여할 것이다.

등잔대로서 신성한 빛을 발함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이겨야 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등잔대로서 신성한 빛을 발할 필요가 있다(계 2:5하). 사랑은 생명과 관련되며, 생명은 빛과 관련된다. 사랑과 생명과 빛은 일종의 삼일성이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시게 한다면 당신은 사랑을 가질 것이다. 만일 당신이 이 사랑과 생명을 가진다면, 당신은 주님을 누릴 것이다. 만일 당신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이 생명은 당신에게 빛이 된다. 등잔대인 교회의 빛은 교회 시대의 어두운 밤에 개인주의적으로가 아니라 단체적으로 빛을 발한다.

그들의 지방에서 등잔대의 빛으로서 예수님의 증거를 지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과 생명과 빛으로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방에서 등잔대의 빛으로서 예수님의 증거를 지킬 것이다(계 12:17하). 우리는 하나님이지자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인생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과 두 번째 나타나심에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빛의 발함은 일종의 증거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빛남은 등잔대의 빛남이다.

우리는 영어 알파벳 중 ‘엘(L)’로 시작하는 네 단어, 곧 ‘사랑(Love)’과 ‘생명(Life)’과 ‘빛(Light)’과 ‘등잔대(Lampstand)’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엘(L)’로 시작하는 이러한 네 단어는 사랑(Love)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모든 것들에서 주 예수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생명나무로 누릴 것이며, 그 즉시 이 생명은 생명의 빛이 된다(요 8:12). 그때에 우리는 등잔대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단체적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등잔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에게서, 단체적으로는 교회로부터 옮겨질 것이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분을 누리기 위해 회개하고 첫째가는 사랑을 회복하라고 경고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등잔대는 그들에게서 옮겨질 것이다. 우리에게서 사랑과 생명과 빛과 등잔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무엇을 살아 내는지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원칙은 우리가 받는 보상이 항상 우리의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어떠한 것이 우리의 보상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공경이 우리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생활에서 우리에게 상으로서 주어질 것이 전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쓴맛을 느낄지도 모른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한다면, 이러한 삶과 행함은 우리의 보상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교회생활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일에서 첫째로 여긴다면, 우리는 사랑을 가질 것이며, 그분을 생명으로 누릴 것이며, 그분과 함께 빛을 발할 것이며, 예수님의 증거인 빛나는 등잔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결국 이 시대에서만 아니라 더욱 오는 시대에서 우리의 보상이 될 것이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상으로 누릴 것이다. (이기는 자들, 35-43쪽)